
2023년 제9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

□ 심의개요

- 일 시 : 2023. 10. 26.(목) 14:00 ~ 16:40
- 장 소 : 시청 영상회의실(본관 2층)
- 참 석 : 위원 12명
- 주요내용 : 미술작품의 가격, 예술성, 건축물과의 조화 등 심의
- 심의안건 : 9개소 18작품(조각 10, 회화 8 / 신규 7, 재심의 11)

□ 심의결과

- 18작품 중 가결 15작품(원안 3, 조건부 3, 권고 9), 부결 3작품

연 번		설치장소	종류	작 품 명	작품 이미지	심의결과		비고
건물	작품					가결	부결	
1	1	운서동 3085-1	조각	향기로운 추억		○		조건부
2	2	미추홀구 용현동 627-80	조각	봄의 세레나데		○		조건부
3	3	서구 연희동 166-10번지 일원	조각	비바람이 불어와도			○	
	4		조각	Precious		○		권고
	5		조각	Spring Dance			○	
4	6	서구 원당동 810-1	조각	달빛에 물들다		○		조건부
5	7	중산동 1889-1	조각	WAVE - water flow		○		
6	8	중산동 1886-22	회화	시노달리타스 -함께하는 여정 1		○		권고
	9		회화	시노달리타스 -함께하는 여정 2		○		권고

연 번		설치장소	종류	작 품 명	작품 이미지	심의결과		비고
건물	작품					가결	부결	
	10		회화	사랑의 나래		○		권고
	11		회화	즐거운 날		○		권고
	12		회화	환희		○		권고
	13		회화	청송		○		권고
7	14	서구 검단신도시 C9-2BL	조각	걸리버_생각에 잠기다		○		
	15		회화	자연율_심상풍경 V		○		권고
8	16	청라동 157-11	조각	Parametric Chess		○		권고
	17		회화	반복			○	
9	18	서구 검단신도시 C5-1-1	조각	모던 타임즈 (Modern Times)		○		

□ 회의록

사회자 안녕하세요. 문화기반팀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9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을 좌석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 오늘 참석인원은 총 12분입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작품은 총 9개소 18작품이며, 조각 10작품, 회화 8작품입니다. 이중 신규는 7작품, 재심의를 11작품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안건 총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점수표 작성 방법(채점 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를 보시면, 각 5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이 만점이며, 70점 이상이면 적합, 7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적합” 판정이 과반수인 경우에 해당 작품이 가결됩니다. 채점시 7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실 경우에는 채점표 하단 비고란에 그 사유를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또한 과반수이상 찬성하여 가결된 작품 중 특별히 안전성, 도시미관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 또는 “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집계 후에 위원님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서 원안 가결을 할 것인지 조건부 또는 권고 가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며 해당 사유에 대한 의견 동의가 과반수 이상이면 가결됩니다. 참고로 “권고사항”은 군구와 심의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종료되지만, “조건부 가결”의 경우는 향후 조건부 이행 여부를 심의위원님들께 서면을 통해 재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데정확한 회의록 작성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마이크를 가까이 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서약서의 내용처럼 오늘 심의 내용,

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청렴서약서 제출)에 규정된 “청렴서약서”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건축물 미술작품은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가들에게는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인의 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주변과의 조화나 공공 미술로서의 역할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시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 총 12명 중 12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9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예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작품채점, 집계 결과발표, 심의의결서 작성, 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작품 채점 순서는 작품별로 심의도서 검토 후 공개질의, 위원별 채점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8차 작품 회의에서는 11작품을 심의하게 됩니다. 심의는 신규작품을 먼저, 그리고 재심의작품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향기로운 추억>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1번 <향기로운 추억>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작품을 살펴보고 작품성은 물론이고 작품이 설치될 공간과 그리고 작품 가격 등을 모두 고려해서 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조금씩 이렇게 바꿔주셔 보시죠. 예, 쪽 한 번씩 진행해 주시죠.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네, 저는 일단 작품 소재라든가 이런 거는 뭐 아파트나 이런 거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밑에 좌대 부분이 너무 좀 뭐랄까, 격자 자체가 좀 볼륨이 크고 현란하다 보니까 위에 작품이 좀 가려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그런 게 조금 더 볼륨이 컸으면 밑에가 좀 그래도 괜찮을 텐데 위에 사이즈는 작고 아래 하단이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아래 부분을 조금 더, 더 작은 격자로 좀 제안을 하든지, 아랫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조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뭐 작품의 변화, 이런 거야 뭐, 작가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의견을 또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합니다.

○○○

네, 저도 동의하는데 좌대를 좀 많이 낮춰서 이렇게 그렇게 되면 격자 무늬도 좀 적어질 거고 그랬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요?

○○○

음, 근데 뭐 미루어 짐작해 본 건데 좌대도 작품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작가는. 근데 작품가액이 조각 작품 치고 심의한, 지금까지 심의해 온 것에 비해서 가격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낮은 가격으로 조금 부피 있게 하려고 저렇게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다른 의견도 주시죠.

○○○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저 체스 무늬가 상당히 거슬리죠. 상당히 눈에

그게 작품보다는 그게 눈에 튀니까. 체스 무늬를 좀 차이가 좀 덜 나게 더 많이 일을 하던가, 하얀색하고 언뜻 보니까 그 고흥석으로 돼 있던데, 고흥석이 사실 물갈기를 해도 저렇게 진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마 CG상으로 이렇게 진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걸 조금 낮춘, 낮춘 거는 작다고 의도가 비례상으로 저걸 낮춰서 똑같이, 양쪽을 똑같이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정도는 감지하고 작가가 하겠죠. 근데 그대로 가도 좋을 것 같은데 격자무늬만 조금 시선을 많이 뺏기지 않게끔 하되 이렇게 권고를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게 아까 가격이 좀 낮게 책정됐다고 하셨는데 가격 때문에 이게 사이즈도 낮아지면 굉장히 좀 그게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일부러 높이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 말씀대로 저 자재 부분을 좀 좁혀서라도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는 저는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밑에가 너무 시선이 뺏겨서 윗부분이 너무 죽어버리니까 그 부분만 조금 한번 더 검토를 좀 해봐달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선도 그렇고 저 컵에서 흘러내려가지고 밑에 떨어진 것 같은 그것이 높이 올라가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죠.

○○○ 네.

○○○ 그걸 보이려고 만든 것 같은데 좌대가 높아가지고.

○○○ 흐름이 좌대까지 이렇게 넘쳐서 내려와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 저 고흥석이라고 하는 게 판석이죠?

○○○ 예, 판석.

○○○ 껍데기만 이렇게 한 거죠? 겉에만?

○○○ 그거 저 원석으로 하고, 보면 아마 지하 주차장인데 칸이 문제가 있어

갖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아, 장소가.

○○○

좌대를 한 단만 낮추면 어떨까요.

○○○

한 단만 낮추면

○○○

이렇게 네 단으로 돼 있는 걸 한 단만 낮춰도 훨씬 보기가 좋아질 것 같은데요.

○○○

4보다는 3.

○○○

예.

○○○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진하게 나오지 않나요?

○○○

예, 약간 진하게 나옵니다.

○○○

아, 그러면 그래픽이 완전히 실수한 거죠.

○○○

보기에는 명도 대비가 너무 심한데 실제 고흥석으로 하면 그렇게 흑백이 콘트라스트가 심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

조각가, 작가분들도 그걸 아셨을 텐데 저대로 그냥 제출한 거 보면 저렇게 진하길 원했었나 보죠, 작가는.

○○○

아니 근데 CG하는 사람하고 이게 같은 사람이 CG를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했을 거예요, 아마 작가가.

○○○

그래도 검토는 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심의회가 통과되면 저기 그 권고사항에

○○○

권고사항에 그걸

○○○

권고나 명도 대비를 좀 강하게 하라든가

○○○

뭐 잔다듬 처리를 하라든가, 고흥석을 잔다듬 처리를 하면 훨씬 더 밝아져요.

○○○

통과가 된다면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그런 사유

를 다를 필요는 없죠. 예, 또 다른, 좌대 말고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 하여튼 <향기로운 추억> 인데 커피 잔을 쏟아서, 느낌은 알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잔이 좀 넘쳐난다든지 아니면 좌대가 자체가 작품이라고 그런다면 그 느낌 나게 여러 처리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너무 근데 자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자꾸 다 집중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 마치 어떤 사옥 앞에 놓여 져야 될 어떤 기념비 같은 느낌이 더 들지, 그게 그냥 조형 작품으로서보다는. 좌대가 너무 근엄하게 서 있어가지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좌대 말고. 뭐, 특별한 의견을 많이 개진할 만큼의 작품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들 이제 그럼 채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채 점 중)

위원장 채점을 다 하시고 오른쪽 탁자, 책상 위에다가 채점표를 올려놔 주시면 수거해 가겠습니다.

2. 미추홀구 용현동 627-80

2) <봄의 세레나데>

위원장 네, 다음으로 안건번호 2번 작품 <봄의 세레나데>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2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니까 가산점은 안 주더라도 일단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거는 맞으신 거죠?
- 사회자 그 조달청 나라장터의 사이트에다가 이제 올렸었고 그래서 이제 작품을 그 공모를 한 걸로 지금 서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 규정이 바뀌어서 하니까 그렇죠.
- 사회자 그렇습니다.
- 공모를 갖다가 뭐, 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뭐, 사실 공모에서 선정이 됐는데 여기서 뭐 설치가 안 됐다 얘기하면 공모를 개최하는 그쪽이 물론 개인 공모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른 작품하고 차별화 되어 뽑힌 거는 맞는데 그거를 심사 대상에 올리는 거는 조금 예의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어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그래도 상위 기관에서 최종적으로 허가가 돼야지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락을 좌우한다기보다는 혹시라도 뭐 권고사항도 있을 수 있고, 혹시라도 그런 의견이 혹시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모에서 당선된 것은 저희들이 낙선시키려고 지금 심의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뭐 당선은 됐어도 작품 자체로 당선된 거니까 심의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권고나 권유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의견을 나눠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그럼 가격 부분에서도 공모비가 이미 책정이 된 거에서 한 거라서
- 그렇죠. 예, 예, 예.
- 그것도 크게 의미는 없겠네요.
- 네, 네. 가격 가지고 얘기하는 건 그렇고요. 한번 점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높이가 몇이죠?

○○○ 4m 20.

○○○ 420이요? 예. 그 주변 풍경하고 같이 있는 거, 한번 띄워봐 봐주세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심의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삼는 작품보다는 공모전에서 당선된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건 있더라고요. 경쟁해서 올라온 것들은, 한 번 걸려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 구조적인 부분 말씀드려도...

○○○ 네, 네.

○○○ 15페이지. 여기 내부에 보면 이제 구조 각관이 들어가 있거든요.

○○○ 각파이프요?

○○○ 예, 그게 지금 어차피 전체가 4m라면 그게 한 2m 조금 안 되게만 들어가 있어서 이게 아마 구조적으로 꼬였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지지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저 상부 쪽이 조금 불안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사전심의 의견을 드린 거에 대한 혹시 답변을 받으신...

○○○ 답변은 아니고요. 그냥 의견만 개진하는 겁니다.

○○○ 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다른 거는 거의 다 기초 콘크리트가 거의 30에 맞춰져 있는데, 지금 이 작품만 20 정도라 높이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이것도 그냥 30cm 정도에 맞추면 좋겠습니다.

○○○ 이쪽 건 30으로 보이는데.

○○○ 아, 그 밑에 있는 잡석.

○○○ 예, 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위에... 잡석인가요?

○○○ 네, 네, 잡석 10, 콘크리트 20.

○○○ 아니... 잡석은 그 아래에 있다는 얘기인가? 예?

○○○ 확대해 보세요.

- 위에 회색 부분이 콘크리트인가요?
- 회색 부분은 잡석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간이 콘크리트가 20 있습니다.
- 그럼 너무, 너무 얇은데.
- 아, 그런 걸 권고사항으로 넣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권고보다는 조건으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 아, 그렇죠. 권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 20밖에 안 되면 저거 너무 얇아요.
- 예.
- 물론 철근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 아, 20은 좀 얇네. 얇은
- 저는 밑에 10까지 봐서 30으로 봤는데
- 잡석.
- 잡석이군요.
- 작품이 막 이렇게 꼬인 형태를 갖고 있어도 그게 이제 수직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전문가 위원님들께서 그것 좀 약하다고 느껴지면 조건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조건부를.
- 조건이나 권고로. 권고나 조건.
- 뭐 ,이 작품은 그런 건 없죠? 안전 그거 진단
- 오히려 작품에 하단 부분이 너무 조금 부담이 될 정도로 좀 굵은 게 흠인데 그거는 안전성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사실 하단도 약간 위쪽과 같이 그거보다 조금 더 굵게 한다든가 그런데 너무

하단이 넓으니까 시각적으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생각입니다.

○○○ 안전진단, 안전과 관련된 거 말고 다른 의견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작품이 기존적으로 설치된, 이거는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것도 조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조명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컨트롤 박스를 작품을 위해서 따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근데 그 컨트롤 박스를 너무나 시각적으로 안 좋게 설치하는 게 흔해요, 우리 주변에. 그러니 차라리 가로등과 마찬가지로 안에 메인 스위치에다 같이 연결시켜주기를 권고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컨트롤 박스를 미적으로 아름답게 페인트 통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더 좋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무슨 박스를 크게 해서 시각적으로 아주 보기 싫은 게 많아요, 주변에 건축 미술품 작품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조명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 그러니까 조명 컨트롤박스의 위치 문제를 권고사항으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조명이 전기, 전기로 하는 거예요?

○○○ 예, 전기. 아니, 전기, 전기. 자연광은 쉽게 고장 나고 빛도 밝지도 않아요. 규모가 4m 이렇게 되니까 아마 AC로 한 것 같아요.

○○○ 사실 4m 바깥에 나가면 별로 높지 않습니다, 4m는. 생각보다. 특별한 의견 없으신 분은 채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중)

3. 서구 연희동 166-10번지 일원

3) <비바람이 불어와도>

위원장 네, 다음으로 안전번호 3번 <비바람이 불어와도> 사회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3번 작품 <비바람이 불어와도>는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료가 그 알루미늄이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저 스테인 인가 뭘 줄 알았더니. 근데 다 작품성이라든가 이런 건 무난할 것 같은데, 무난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하단에 파이프 상의 저기에 꼭 사람들이 와서 이 물질을 넣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에 막 뭘 집어넣어서 빼기도 어렵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네. 저 구멍 뚫린 부분하고, 광택이 나는 부분하고 다른 재료인가요?

○○○ 같은 재료들이예요.

○○○ 지금 색깔이 지금 황금색인가요?

○○○ 예, 코팅한 거더라고요. 저 색을 넣은 거더라고요.

○○○ 저런 작업은 주로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구성을 하게 되나요?

○○○ 글썄, 저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분이 그전에는 파이프로만 하는 작가, 그 작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은 저렇게 앞부분을 좀 막아서 그 알루미늄은 또 다른 재질하고 용접이 안 돼요.

○○○ 아, 네.

○○○ 알루미늄끼리 밖에. 다른 걸로 하게 되면 물론 용접을 어찌다 하는 수인데 쉽게 떨어져요. 그래서 같은 재질로 아까 읽어보니까 같은 재질로 했더라고요.

- 근데 알루미늄 재질이 약간 기포가 좀 많잖아요. 이렇게까지 아주 매끈하게 나오는
- 아, 이거는… 아, 그러니까 줌을 뜯 때 말씀이신 거죠?
- 예, 예.
- 아마 그걸 좀 나중에 처리하고, 도장을 한 거니까 그냥 저기는 아닐 거예요. 알루미늄 뜯 때 주물이, 기포가 많이 생기죠. 스테인도 마찬가지로, 뜯 때.
- 저 하얀 부분은 아마 컴퓨터 작업으로 나오지 않고서는 저건 그냥 수작업으로는 어려운 것 같고요. 컴퓨터 데이터를 뽑아내서, 찍어내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를 이제 컴퓨터 툴을 이용해서 가지고 변환시키는 거죠.
- 제가 보기에선 저 베르니니 원작은 상당히 고전적이고 아름다운데 베르니니 원작에 대한 선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작품은 그렇지 않고 선이 좀 그로테스크 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 좀 무서워 보이죠?
- 예, 그리고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이 좀 위압감도 줄 테고. 이거 좀 구멍이 뚫린 게 별집 모양의 저것이랑, 인체랑 썩 어울리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 네.
- 그 공공주택에 있는 조각으로서는 썩 이렇게 모뉴멘탈리티가 있긴 한데 주거 공간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언제부터인가 수년 전에 공공미술 작품 제작을 할 때 그 조건으로 항상 인체 형상을 기괴하게 만든다거나 뭐 그런 것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람 인체를 잘못 변형하거나 형상을, 재료를 잘못 사용해서 그러면 좀 밤에 특

히 그리고 얼핏 봤을 때 좀 혐오스러워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런 인체 형상의 변형된 형태가 아까 그로테스크 말씀하셨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죠.

○○○ 이미지만 보면 저도 조금 약간 낯설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미지만 봐서 판단하기가 조금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 아마 이게 작품 스타일을 보면 이분이 처음에는 그 얼굴이 가면만을 주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작가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처음에는 많이 했다가 최근에는 저렇게 인체를 좀 이렇게 막아갖고 하는 작업을 일부 하는 것 같아요. 기성 작품을 이용해서 하더라고요. 작품성, 그럴 때 뭐, 크게 저기 없는데 일반 느끼는 대로 작가님들, 위원님들이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여기 참고자료로 최근 5년 동안 설치한 작품 사례가 나와 있거든요. 이 작가 거를 보면 파이프 같이 뚫린 저런 형태가 어떤 형상이냐에 따라서 어울리는 게 있고 좀 그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형태에 따라서.

○○○ 또 정확히 만들면 이렇게 또 새로운 또 작품을 계속 했기 때문에.

○○○ 네, 네. 좀 이렇게 좀 원경 없나요, 원경? 멀리서 보는 것 같은 원경. 음, 디테일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디테일. 근경. 사실 우리가 조명을 하면서 야경을 그래픽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사실 야경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주간경이 더 중요하지. 실제로 야간에 나와서 감상하는 사람은 사실 뭐 많지 않은데, 야경을 좀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광택이 심해서 형상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네.

- 일단은 주거 지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 그거 중요하죠, 예. 제일 중요하죠.
- 네, 그로테스크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제일 우려되는 게 저게 과연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가 사실은 지금 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얀 부분도, 흰색 부분도 좀 신경이 쓰이지만 그 파이프라고 하는 속에 이제 공간이 있는 부분이 제일 좀 유지가 될까. 사실 청소 때문에 제일 주변에 다니면서 많이 곤란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고려가 되었으면 생각입니다.
- 저 설치하는 곳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아니죠?
- 길 같은데요.
- 요 그래픽이 제대로 그려진 거라면.
- 아파트가 한 동, 두 동, 세 동이 있고 그 안 공간에 들어가 있는.
- 네. 이 작품 참고하셔서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작품 실내에다 해도 좀, 약간 볼륨을 줄여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 위원장 모든 의견을 조율해서 채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중)

3. 서구 연희동 166-10번지 일원

4) <Precious>

- 위원장 자, 다음으로 안건번호 4번 <Precious>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예, 4번 작품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세요.
- 사실 건축 경관 심의 같은 거를 봐도 조명을 사용할 때는 흰색, 백색이나 노란빛으로 그냥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많이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작품의 경우에 RGB 컬러를 여러 가지 색상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게 자칫 경관을, 굉장히 야간 경관을 조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 일단 야간 경영에서 조명을 무조건 흰색으로 통일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퍼지면서 간섭이 되느냐 정도까지를 조금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저거 같은 경우에는 작품에 비해서 퍼지는 정도가 그 작품 라인 안에서 정도라서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거는 그 경관 쪽까지 갈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이제 조형물이 단순하게 있는 것보다는 약간 저렇게 변화가 있다는 거 자체를 좀 뭐랄까 좀 재미있는 시도라고 이제 생각을 반대로 했었거든요. 저게 이제 높이가 굉장히 높아서 아파트에서 빛 부심이라든가 이런 게 좀 영향이 있는 정도의 크기도 아닌 것 같고, 그 비춰지는 전체도 아니고 하단 부분에만 이렇게 있는 거여서 그렇게까지는 조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또 조명이 변화가 되는 그 속도가 예를 들어서 인터벌이 길다면 더욱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막 산란한, 막 요란하게 반짝반짝 거리면 뭐 좀 그렇겠지만 한 색깔이 되고, 그다음 색깔로 변할 때 시간을 좀 두고 천천히 변하면 큰 방해는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 오히려 저 작품 이 주변에 있는 조도를 한 2,000 정도 이렇게 조금 더 낮추면 좀 안정감이 되어 있어 그 부분이 조금 뷰 포인트가 될 수 있

는 그런 요소들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권장을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 네, 네, 네.

○○○ 이 작품 외부에 설치된 조명보다도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 내부에 있는? 예, 예. 저 구 부분에만 있는 거죠, 원. 구 부분에만. 뭐, 금액이 훨씬 크다면 아마 형태가 커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원경을 보면 약간 작아 보이는 듯 하기는 한데.

○○○ 전체적인 가격이 좀 낮으니까 크게 키우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 네, 네, 네. 뭐, 안정상에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큰 애깃거리가 나올 것 같은 작품은 아니니까 채점해 주시죠, 예.

(채점 중)

○○○ 하나 저기 한다면 이게 부위에 이제 구멍이 좀 뚫려 있어서 누수라든가 우천 시에 기능을 할 수 있는 RGB도 방수가 있거든요. 방수 기능이 있는 것만 물론 사용하시겠지만 그런 것만 좀 한번 고려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그거는 권고사항으로 꼭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천 시에, 우천 시를 대비한 그런 게 필요하다. 본인은 다 생각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권고 내용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3. 서구 연희동 166-10번지 일원

5) <Spring Dance>

위원장 다음 안건 5번 <Spring Dance>에 대해서 사회자께서는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5번 <Spring Dance>는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한데 제가 볼 때도, 죄송한데 저는 사실 이 작품이 조금 약간 실망스러운 점이 좀 많습니다. 이거 가격대도 1억 정도라고 이 정도 표현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외부 조형물은 한쪽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사각 면에서 보고, 위에서도 보는 그런 조형, 입체적인 조형물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너무 평면적으로 쉽게 접근하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 네.

○○○ 이게 제목이 <Spring Dance>인데 댄스라는 그 생겨지는 것처럼 물딩이에 비하면 비율이라든가, 이런 비율들이 너무 좀 슴슴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좀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의견 좀 주시죠, 위원님들.

○○○ 저도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게 <Spring Dance>면 좀 역동적이 있어야 되는데 역동선이 이제 좀 표현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네.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좀 주세요.

○○○ 저는 색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 네, 네.

○○○ 이게 이제 하늘과 유사해 색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색감이 잘 나오면 좋겠지만, 저 색이 제대로 표현이 될까하는 사실 우려가 좀 있었습시다. 그래서

○○○ 아, 흰색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파란색이 되는 거죠?

- 네. 그래서 저 색이 과연 잘 표현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금 형상성도 그렇지만 색감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뭐 어련히 안전하게 설치를 할 의도도 갖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그런 느낌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정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사각의 두께가 거의 상단이나, 하단이나 두께가 거의 비슷해 가지고 곡선의 한 부분만 지면에 접촉이 돼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저게 위에 하중을 밑에서 잡아줄까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위태롭기 해 보입니다.
- 도면을 보면 이게 사실 조형적으로 저희가 구조 검토하는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요. 그게 접합부에 뭐 이렇게 통과를 해서 전체를 균형을 지지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접합부가 좁다 하더라도 안정감이나 구조적인 면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뭘까, 잘라진 단면을 그 용접 형식으로 붙여놨어요. 이렇게 되면 안정감이 사실은 좀 약해지는 요인이 되거든요. 전체를 하나로 뚫어서 이렇게 구조를 지배하는 거 하고, 이것을 이렇게 자른 단면이 이어지는 거하고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어서 구조적인 면에서는 좀 약간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제 의견은 좀 그렇습니다.
- 아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게 보니까 재질이 또 알루미늄이더라고요.
- 아
-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 그 밑에 차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 스테인 보다는 약하죠?
- 예, 그럼요.
- 가격 대비도 알루미늄이 훨씬 싸기 때문에 이거는 보기에다 불안해 보

이니까.

○○○ 여기에 작품들이 거의 다 알루미늄으로 요즘은 하더라고요, 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작업하기가 손쉽고 컬러가 잘 먹어요, 알루미늄이.

○○○ 작품 재료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 아, 그래요?

○○○ 스테인리스 스틸.

○○○ 아, 그럼...

○○○ 네, 스테인리스네요, 예.

○○○ 그렇다면 더더욱 스테인 자체는 무게가 하중이 꽤 있는데

○○○ 그렇죠, 무겁죠.

○○○ 그 부분을 용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 높이가 몇이죠, 높이가?

○○○ 3m정도.

○○○ 3m이면 좀 무거운 것 같은데, 작품이.

○○○ 네. 그래서 오히려 알루미늄이면은 그 자체가 좀 아무래도 스테인 보다는 가벼우니까 이렇게 해도 버티겠다 하지만 스테인이라고 하면 더더욱 이런 방식의 그런 용접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주제도 좀 성의 없고, 약간 구조적인 면도 좀 문제가 있어서 재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걸 재질이 알루미늄이 맞아요? 여기 제가 쓰여 있는 데는 스테인리스 스틸

(다수 위원들이 “스테인” 이라고 말함)

-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위원님들 채점해 주시죠, 그럼.
- 아, 스테인리스, 우레탄 도장이구나.
- 안전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스테인으로 하면? 안에 또 뼈대가 들어 있고.
- 아니, 스테인으로 하면 하중이 있기 때문에 윗부분을 차라리 관통을 해서 하면 괜찮은데 용접으로 했을 때는 위에 무게가 더 나가니까 알루미늄보다 했을 때는 더 구조적으로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이게 또 약간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나요, 살짝?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나요?
- 아니, 근데 구조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조형적인 문제는 안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거기에 안에 보니까 프레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알루미늄 판재를 갖다 몇 T로 돼 있는지 제가... 이게 몇 T로 돼 있나요? 판재가. 거기 시공 계획서에.
- 스테인리스 판의 두께가
- 두께가
- 표기 되어 있나요?
- 3T겠죠, 보통.
- 표기 있나요, 거기에?
- 베이스 플레이트가 10T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 예, 예. 아니, 위에, 위에만. 3T네요, 3T.
- 10T면 2cm예요.
- 3T겠죠.
- 예, 3T로 돼 있어서 뭐 그렇게 무거운 하중은 안 나가요. 근데 이제 하단에 그 안에 프레임이 들어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는.

○○○ 뭐, 조형적으로, 구조적으로 다 살펴보시고

○○○ 조형적으로는 저...

○○○ 조악하죠.

○○○ 조악하긴 해요. 너무 입체가 평면성이 너무 강조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 예, 채점해 주세요, 위원님들.

(채 점 중)

4. 서구 원당동 810-1

6) <달빛에 물들다>

위원장 자, 안전번호 6번. <달빛에 물들다> 사회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6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어, 놀이터 옆에 있는 주제는 굉장히 괜찮은 주제인 것 같은데 저는 아기 엄마로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이 바닥 판 높이가 살짝만 높거든요. 아이들이 막 뛰어가다가 너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 아, 좌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 네. 그러니까 아예 못 높으면 더 조심을 하고 그냥 앉아서 놀 텐데 이 정도는 탁 걸려서 넘어지기 너무 쉬운 높이라서 그게 조금 우려가 되고. 그리고 토끼의 이렇게 형상을 보면 살짝 뽀족뽀족한 부분들이 있

어요. 그게 엄청나게 뽕족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조심성 없이 분명히 뛰어 들어가고 할 텐데 그때 살짝 부딪히는 면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곡선을 좀 더 부드럽게, 완만하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네, 네. 모서리 부분에 대한 안전성은 아마 충분히 작가들이 그걸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고려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좌대 문제는 놀이터 옆이라서 그건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영부영하게 지면보다 살짝 높으면 분명히 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약간 높아서 뭐 좀 벤치의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아예 없거나, 아예 지면하고 똑같거나 그거는 좀 필요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 말씀하셨던 모서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마감 처리에 대한 기재는 없어요.

○○○ 아, 네.

○○○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주의로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저는 그거 자체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약간 모듈화처럼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옆에서 보면 약간 뭐랄까 도시의 한 단면까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유명함이 있어서 작품은 괜찮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마감은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마감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 네, 모서리의 문제는 권고를 넘어서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모서리를 잘 부드럽고, 매끄럽게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좌대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약간 좀 좁히면서

○○○ 크기를 작게 하면서?

○○○ 예, 작게 하면서

- 아, 네, 네.
- 최대한 올리면 훨씬 더 평지에서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 네. 뭐 그런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작품이 구도 아니고 납작한 알상한 건데 그 바닥석이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있긴 합니다. 그럼 높이는 거와 바닥 좌대석을 줄이는 거, 크기를 줄이는 거 어떤 것에 더 우리가 조건이나 권고를 해야 될지 위원님들 의견 또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크기는 그대로 놔두고 높이만 높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금 상태가 좋은지 아니면 더 낮추는 게 좋을지.
-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랑 땅으로 조금 더 묻히면 주변에 이제 풀이라든가 이런 관리가 안 되면 작품의 하단 라인이 좀 죽어버리는 게 평면이 좀 있어서 차라리 조금 더 높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네, 뭐 벤치 정도 40cm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애들이 있는 놀이터 옆이라면 애들이 우리 성인들 의자처럼 40cm 정도까지 높일 필요는 없고. 현재는 지금 몇으로 돼 있죠?
- 10cm고요.
- 10cm요? 예. 금방 풀이 자라서 저거 가릴 텐데.
- 서 기 여기요? 8cm 되어 있습니다.
- 8cm예요, 그거.
- 결국 높이에 대해서 크게 고려 안 하신 것 같은데 작가가. 이런 의견 나을지 몰랐을 거예요, 아마.
- 저희가 이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저 폭이 단면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한쪽은 완전히 구처럼 보이지만 맞은편은 얇아서
- 예.

- 이런 폭을 조금 넓혀야, 이런 것까지는 하기는 좀 어려울까요? 그런 것까지는 너무
- 네, 그거는 뭐 작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 작품에 대한 거는? 그거는 안 되는
- 그건 작가 소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 지금 그래픽 상황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눈부심에 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을까요?
- 일단 이 자체가 밖으로 이렇게 바깥을 향해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눈부심은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안쪽에서 대한 거기 때문에 크게 외부 쪽에 눈부심에 대한 간섭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아니, 이 구, 구의 표면. 구의 표면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예, 낮에 이제 저 태양빛 때문에
- 저 원의 표면. 표면이 어떤 처리를 한 건지.
- 어떤 경우는 저렇게 이제 아주 빛나게 되니까
- 근데 표면을 광을 그렇게 많이 내놓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눈이...
- 이게 약간 부식도, 부식 처리, 텍스처어 처리는 부식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셨기 때문에
- 그런 약간 이미지 처리한 거죠.
- 예, 예. 광이 반사돼서 오히려 광을 먹는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크게 저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 위원장 그로시 하게 막 광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채점해 주세요.

(채점 중)

5. 중산동 1889-1

7) <WAVE - water flow>

- 위원장 안전번호 7번, <WAVE - water flow>에 대해서 사회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네, 7번 <WAVE - water flow>는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데 이제 확실히 다 잘 서 있겠지만 이렇게 밑에 부분이 다 원형인 작품들은 저희가 볼 때는 좀 약간 저렇게 잘 서 있을까, 불안감이 좀. 특히 저런 작품은 양쪽으로 턱이 날개 큰데 저게 잘 버틸 수... 근데 소개 공법을 보니까 튼튼하게는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좀
- 모든 하중의 중심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옆에는 날개 정도의 조그마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 시각적으로만 느끼는 거지
-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정감 있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 저기 있잖아요. 뒤에 발, 말발굽 하나 안에 다
- 아마 안정감 문제에서는 전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작품성이나 뭐
- 다 좋은데 다시 보는데 가격 대비 조금
- 규모가 어떤가요, 규모가? 규모가 커 보이는데.
- 7m.
- 가로가 7m. 높이가?

(“4.5” 라고 말하는 위원들 있음)

○○○ 아

○○○ 그리고 이게 약간 유기적인 형태라 이거 틀 떠서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죠.

○○○ 네, 그럴 것 같아요.

○○○ 그래서 아마 가격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 제가 볼 때는 흔히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조형물만 하는 작품 같지는 않고요. 보니까 작가적 역량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보입니다. 디자인이 작가적 역량이에요. 웬만한 이렇게 꼬인 것들을 봐도 이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현장 뷰 있나요? 현장 뷰?

○○○ 이거는 약간, 약간 크기가 과장돼서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래도 4m, 5m 정도 되는데, 지금은 한 8m 정도 되고, 그래픽을. 네, 네.

○○○ 예쁘네요.

○○○ 예, 아주 작품 좋아요. 예. 그 옆에 또 수변 공간이 있나 보죠?

○○○ 예, 그런 것 같아요.

○○○ 아, 그러면 더욱더 제목 자체도 뭐.

○○○ 이 주물 작업이 아니고 단조 작업이네요.

○○○ 아, 단조 작업이에요?

○○○ 예, 예.

○○○ 그렇다고 그러면 더 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라

○○○ 안에 프레임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안전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가운데 파이프가 아주 굵게

○○○ 네, 지금 조명이 일직선으로 4개가 들어가는데, 7m로는 조금 부족한 면은 없을까요? 조명이?

○○○ 아니요. 7m 아니고. 아, 폭이요?

○○○ 폭이. 기둥 자체가.

○○○ 근데 사실 야간 조명이 작품을 돋보이게 하는 목적보다는 사실은 안전에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조명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픽같이 저렇게 아마 화려하게 조명으로 저렇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 뭐 안전상 지나가다 부딪힐 일도 없을 것 같고, 높이가.

위원장 자, 위원님들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 점 중)

6. 중산동 1886-22

8) <시노달리타스-함께하는 여정 1>

9) <시노달리타스-함께하는 여정 2>

위원장 네, 다음은 안전번호 8번인데요. 지금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재심의 작품입니다. 참고하셔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께서는 안전 8번 <시노달리타스-함께하는 여정 1> 작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9번을 같이 할까요? 네, 같은 작가 작품이니까.

사회자 예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혹시 회화하신 분들, 저기 이게 몇 호 정도 되나요? 이거 처음 거, 8번에 해당하는 180인데, 180.

○○○ 한 150호, 첫 번째 작품 150호보다 약간 작고요. 두 번째는 150호 맞습니다. M형이라고 약간 알쌍한.

○○○ 이건 150호.

○○○ 네. 첫 번째 작품은 정방형 정사각형이고, 두 번째 작품은 약간 납작한

작품입니다. 150호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근데 같은 작가님 작품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저는 회화 쪽은 아니고.

○○○ 작품 두 개가요?

○○○ 그러니까 이 전에 거를 못 봐서. 먼저 제출하셨던 거하고.

○○○ 아, 먼저 제출한 거 하고요? 글썄요. 먼저 탈락한 작품하고 바뀐 작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예, 예.

○○○ 같은 사람이에요?

서 기 예.

○○○ 근데 이제 그래픽 하시는 분들이 저거 12시, 1시 방향하고 7시, 8시 방향에 저 뻥뻥거리는 효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저거 그림 같잖아요, 꼭. 뻥뻥거리는, 액자가 뻥뻥거리는 효과를 그래픽으로 만든 건데.

○○○ 아

○○○ 저걸 왜 저렇게 허영게 이렇게.

○○○ 이게 150호나 되는 작품인데 그 복도의 길이, 좀 상가 뒤쪽인 것 같습니다. 고개 돌린다는 자체가 너무 작품이 크지 않나요?

○○○ 커도 문제가 되는군요. 될 수 있죠.

○○○ 아니, 그 공간이 복도 폭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축하시는 분들, 제가 몇 cm인지 잘 모르겠는데.

○○○ 거기 한 번 봐주세요, 네.

○○○ 이거 몇 cm로 나오나요?

○○○ 10페이지에 건축물 배치도 있거든요.

○○○ 8페이지에도 있고

○○○ 보통 건물의 일반 복도가 2m거든요. 아, 근데 이게 1.8정도, 그정도.

- 2....
- 1.8.
- 이건 상가가 1.5 정도... 감상 하시거리가 나오나
- 벽면의 크기가 나오나요?
- 근데 사실 이거는 그쪽에서 그 원하는 사이즈가 이 정도 되는 걸 해달라고 작가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 사이즈를 거기 붙여서 잘,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했던 경우에도 하시거리가 조금 좁지만 그래도 할 수 없이 이렇게 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또 그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처음에 거는, 걸기로 했는데 또 못 걸게 되면 또 기존대로 걸 수도 있고 한데 크기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벽 너비는 약 3m 정도 되는 걸로... 너비.
- 네. 그럼 뭐, 그림이 아주 큰 것도 아니고요. 벽에 붙는 그림들은 커도 입체물과는 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벽에 붙이는 거는 뭐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 예, 저기 보면 그림 사이즈랑 벽면이 다
- 네, 충분한 것 같은데요.
- 요새 그 회화적 추세가 어떤 장식성을 좀 폼하하는 그런,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어떤 여성적 감수성 같은 게 좀 드러내는 작품 같긴 한데. 네, 그리고 장식을 무조건 하, 폼하할 것이 아니라 장식이 갖고 있는 어떤 미래적 또는 종교적 그런 기복적 상징들이 있잖아요.
- 네, 네.
- 예를 들면. 그래서 장식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소환해 본다는 의미에서 이 작품을 이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 네, 네.

○○○ 저는 먼저 작품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 훨씬 낫죠. 훨씬 나아요.

○○○ 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 훨씬 나아요.

○○○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책상도 한국적인 오방색 같은 색을 많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조금 동양적인 느낌이 드네요.

○○○ 예, 뭐 기법 실험이나 이런 효과 실험, 색상 실험 이런 게 많이 좀 돋보이는 작품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먼저 작품보다는 훨씬, 훨씬 좋습니다.

○○○ 그리고 보니까 여기 24k 골드까지 막 발랐네요.

○○○ 고생은 많이 한 것 같네요.

위원장 네. 엄청나게 노력한 작품이긴 합니다. 자, 두 개 다 채점해 주시죠, 한 번에.

6. 중산동 1886-22

10) <사랑의 나라>

11) <즐거운 날>

위원장 네, 안전 번호 10번. <사랑의 나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도 전보다, 변경 전보다는 후가 나은 것 같아요.

○○○ 네.

○○○ 네, 나은 것 같습니다.

○○○ 마치 변경 전 거는 원래 작품이 아니라 그냥 조그마한 거를 확대를 해

서 나중에 그래가지고 소품으로 그냥 찍은 것 같고, 저것도 역시 그래
픽 효과를 쓸데없이 하얗게 그렇게 돼버려 가지고 기억이 ... 적절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돼서 부결이 됐는데, 이번에 거는 위아래 작품이 약
간 성격이 다른 작품이긴 하지만 먼저 변경 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
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일단 작품 내용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한 건 아니지만 완성도라는 거
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서. 사실 이게 재심의인
데 언제까지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 하도 부결이 되니까 재심의 때 작품이 조금 더 나아지는 점이 있는 거
나, 뭐.

○○○ 근데 아까 끝나고 잠깐 말씀하셨지만 장식성으로 볼 건지, 작품으로
볼 건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완성도 면에서 가
능하다 하면 그냥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역시 이 작품도 이 바로 전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150호 상당한 작
품이고 그리고 <사랑의 나래>는 정방향이고, <즐거운 날>은 이제 150
호 M형. 가로로 좀 약간 150호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이제 스크린 정도 크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도시, 나무, 동물 요즘 많이 등장하는 소재 같아요.

위원장 회화는 뭐 입체 작품처럼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문제가 많지 않기 때
문에 바로 그냥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중)

○○○ 저기 권고사항에

○○○ 네.

○○○ 그 보니까 칼부력을 박는 걸로 다 돼 있더라고요.

○○○ 칼부력?

○○○ 예, 예. 그러니까 그냥 피스로요.

○○○ 네, 벽에 걸려면.

○○○ 근데 그거를 아주 적은 앵커, 13mm짜리 있어요. 그걸로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건축물에 이게 기치가 오래 될 수 있는 건데 그냥 일반 피스로 하게 되면 안전성에 문제도 있고 좀 약하죠.

○○○ 근데 반대로요. 해보니까 그 벽이 저거 안에 또…

○○○ 공간이 있죠.

○○○ 그리고 보조하는 게 있고, 그리고 벽까지 가려면 앵커를 해야 되는 앵커 긴 거 있어요, 예.

○○○ 예, 그렇게…

○○○ 그런 거예요. 그게 좋아요, 예.

○○○ 그거는 예, 작가가 알아서

○○○ 아니, 그게…

○○○ 작가가 아니라 그 설치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 그걸 저, 그거 할 때…

○○○ 근데 그냥 150호 정도는 액자 안 하는 거면

○○○ 근데 그거 칼부력 하니까 어제 저기 또 설치하는 데 가서 제가, 저는 앵커를 주로 하니까. 앵커를 갖다가 제시해 줬더니 아주 튼튼하고 좋아요. 아니면 이게 흔들흔들 해요.

○○○ 그 벽이 안 깨지고 잘…

○○○ 아, 그거는 벽, 드릴로 뚫어서 하면 괜찮거든요.

○○○ 그러네요.

○○○ 회화 작품 설치 문제는 뭐 크게 문제시된 적이 없으니까요. 아마 그건 잘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6. 중산동 1886-22

12) <환희>

위원장 네, 안건 번호 12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12번 <환희>는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궁금해서 그러는데 화면이 이렇게 분할이 됐는데 이 사이즈가 안 나와서 그런 건가요?

○○○ 그게 아니라 두 개를 겹쳐서.

○○○ 왜 붙여요? 하나로 안 붙이고?

○○○ 워낙 기니까.

○○○ 기니까. 이게 3m가 넘으니까 아마 그랬나봐요.

○○○ 아마 조형적인 특별한 의도는 없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 가로가 너무 길어서 한 피스로 할 수도 있는데, 두 피스로 해서 연결해도 무방하니까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작가의 개인 취향별 ‘나는 그래도 한 피스가 좋아.’ 그래서 하는 작가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렇게 연결을 해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100호 2개 연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호 F형, 2개.

○○○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작품이 기준이 조금 유명 작가의 작품을 카피한 느낌? 이런 느낌이 나는 건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 유명한 작가라 하면은...

○○○ 그러니까...

○○○ 원로 작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 네.

○○○ 아, 아, 그 작가하고는 많이 달라요.

○○○ 예,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작품이랑은 완전히 다른데

○○○ 이 작가 이전에 두 개 나와서 하나가 부결되고, 하나가 가결됐는데 부결된... 아, 가결된 작품을 보면 이런 기법으로 그린 것 같더라고요. 겹에 테두리가 좀 진하게 나오고, 그림 그리는 기법은 본인 기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액자가 돼 있는 건가요? 이렇게 또 뻗적거리는 효과를 그래픽 내는 거 보니까.

○○○ 그런가 봐요.

○○○ 액자 돼 있는 것 같아요.

○○○ 아크릴 박스 액자, 네.

○○○ 이것도 피스 앵커로 하지 말고 그냥 앵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네, 네. 그거 같이 권고사항으로 꼭 넣죠. 만약에 그게 일반 캔버스라면 사실 상당히 가벼울 겁니다. 무게는 그렇게 나가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안전한 게 좋으니까. 자, 요거 안전번호 12번, 단독 작품이니까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중)

○○○ 이게, 이게 지금 대리석으로 돼 있는데, 대리석을 대리석 속에 콘크리트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요.

○○○ 대리석이 껍데기죠, 예.

○○○ 예, 대리석 두께가 보통 1~2cm인데 그래서 앵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네, 네, 네.
- 앵커는 긴 거가 있어서 안에서부터 뚫고 들어가서 박을 수가 있으니까. 콘크리트에 닿아야 되걸랑요.
- 안전함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죠.
- 타일 형태의 대리석이기 때문에 접착력이 앵커로다 고정시켜 놔가지고, 앵커로 고정시킨 그거에 구멍을 뚫어서 피스 앵커로 막아놓은 거거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워요. 공간이 떠 있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다 하게 되면.

6. 중산동 1886-22

13) <청송>

- 위원장 채점 됐나요? 네, 안전번호 13번 <청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네, 13번 <청송>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결 전에 작품 좀 보여줘 보세요.
- 작가가 변경인 건가요? 변경된 것 같은데.
- 작가가 변경 됐어요.
-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 서 기 작가 변경 맞습니다.
- 예, 그렇죠?
- 예, 작가가 달라질 것 같은데.
- 그리고 명패도 아주 상당히 두꺼운 2.8T로 돼 있어요.
- 작품 설명 명패요?
- 예. 아주 상당히 좋게. 보통 1T, 0.8T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1.8T짜리

로 해서.

○○○ 예. 두꺼울수록 좋긴 좋지.

○○○ 작품 크기는 150호 F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 저 스크린만 하네요, 그림이. 많은 작품들을 다 그래픽을 한 사람이 한 것 같아요. 저 번쩍거리니까 너무 안 좋은 레퍼토리를 갖고 계신.

○○○ 이거는 아마 이거 랜더 하신 데에다가 그림 얹히면서 그냥 액자로 표시를 해서 그렇게

○○○ 네, 액자 효과 내려고, 액자가 아크릴 액자가 있다라는 효과 내려고

○○○ 그 질감을 내려고 하는데.

위원장 근데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그림의 일부같이 느껴져 가지고. 네, 이 작품도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 점 중)

7. 서구 점단신도시 C9-2BL

14) <걸리버_생각에 잠기다>

위원장 네, 다음은 안전번호 14번. <걸리버_생각에 잠기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14번과 15번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체의 변화는 좀 많고요. 지적하신 사항이 이제 좀 권위적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마 이제 우리가 칼을 갠다든지 이러면 좀 생각하는 느낌이 나겠지만 그건 너무 혼한 거고, 저 팔짱끼는 거를 조금 손을 좀 보면 좀 느낌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변경이 된 것 같

아요.

○○○ 혹시 작품 저 디테일 부분이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먼저 부결된 작품은 그냥 각이 있는 거였고, 이번에는 좀 표면, 피부 표면의 기법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 그게 되게 독특하고 그런 것 같아요.

○○○ 재밌게 됐어.

○○○ 네, 네, 네.

○○○ 1차로 이게 먼저 분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사이즈나 보자, 이걸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많이 달라진다는 게 이게 좀.

○○○ 처음에는 각이 그냥 지고 그냥 팔 벌리고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이번 작품은 좀 안정감이 있는. 컬러는 어떨까요? 색깔이?

○○○ 색감은 멀리서도 잘 보이는 것 같아요.

○○○ 네. 7m 정도 되는데 그래픽은 뭐 한 10m. (웃음) 가끔 사전 심의에서 보니까 약간 좀 작다고 얘기가 됐는데 크기도 괜찮은가요? 7m 정도면?

○○○ 예.

○○○ 음, 안정감은 더 있겠죠, 더 큰 것보다는. 보통의 사람 서 있는 이런 거는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죠. 이렇게 연결된 부위, 부위가 좀 독특하긴 하네요, 상당히.

○○○ 예, 되게...

○○○ 네. 그냥 인체 조각은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피부를 저렇게 조합해서 하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자, 의견 주신 거를 토대로 채점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채점 중)

7. 서구 점단신도시 C9-2BL

15) <자연율_심상풍경 V>

- 위원장 다음은 안건번호 15번, <자연율_심상풍경 V>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예, 15번 <자연율_심상풍경 V>는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 크기는 150호고요. P형. 다시 말해서 이제 풍경형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 좀 개인적으로 옆으로 조금 넓었으면 좀 안정감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좀 그렇긴
- 옆으로 넓어요?
- 네, 옆으로 옆, 옆폭이 조금 더 넓게, 이렇게 그 프레임을 좀 이렇게 잡으면 안정감이 훨씬 짝 왔을 것 같아서. 그게 좀 애매하긴 한데.
- 사실 캔버스가 기본적으로 F형, P형, M형이 있는데 사실 F형이 제일 가로세로 비율이 이제 황금 비율로 된건데 P형, M형으로 갈수록 세로가 좁아집니다. 좁아져서 이거는 P형이라고 일부러 풍경형의 캔버스 형태를 쓴 것 같습니다. 먼저 부결된 작품의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고 이 작품은 아주 편안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또 조명을 또 그 부분에다 쏘면 더, 더. 아크릴하고 오일하고 섞어서 한 작품이라서 조금 더 독특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질감이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질감이.
- 네, 다 좋은데 역시 아까 지적한 거대로 앵커 체결 방법이 이게 칼부력으로 돼 있어요. 공간이 떠져 있는 건데 오른쪽에는 또 공간이 다 채워진 걸로다가 제작돼 있어서.
- 네. 아마 그런 거는 철저하게 생각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아니,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저 공간이 떠 있는데 오른쪽에 저기 쪽에. 오른쪽에는 벽체가 콘크리트 하고, 대리석하고 붙어 있죠. 왼쪽에는 떠 있는. 앵커로 해서 벽체에서 무슨 건식대에서 붙이고 있었는데, 이쪽에는 습식으로 했어요, 오른쪽에.
- 근데 보통 콘크리트하고 대리석 꺾데기하고 보통 거리가 항상 있죠, 유격이 항상 있고.
- 그게 건식으로 하면 유격이 있고요. 습식으로 하면 붙어 있어요.
- 아, 그래요? 예.
- 근데 보통 건식으로 해요. 화장실 같은 데는 습식으로 하고.
- 음, 네, 네.
- 이걸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요. 벽면이 너무 복잡한데 이렇게 자연이 들어가서 괜찮기는 한데
- 아, 네.
- 그냥 조금 아쉬운 거는 그림이 차라리 벽면에 가운데 들어가고 명판이 조금 옆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명판 위치, 그다음에
- 사실 명판이 엄청 중요한 게 아닌데, 사실은.
- 네, 명판도 지금 굉장히 큰데다가 네, 그림이 이 명판 때문에 옆으로 밀린 느낌이 나서
- 이런 건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거는 뭐 조건이라기보다는 권고사항으로.
- 네, 네.
-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명판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사람인데, 작품이 설명이 꼭 필요한 작품이라면 그런 게 들어가야 될 텐데 저렇게 구상적인 작품들은 꼭 설명이 필요 없는데 명판 크기도 그렇고.

○○○ 명판, 명패가 조각에 쓰는, 입체에 쓰는 크기인데요.
 ○○○ 네, 엄청 커요, 지금.
 ○○○ 이거보다 작은데.
 ○○○ 그림이 지금 밀려나는 느낌이 들어서.
 ○○○ 네, 네, 네.
 ○○○ 150에 70정도 그렇게 하는데.
 ○○○ 그리고 뭐 이렇게 자꾸 설명이 많아요.
 ○○○ 설명도 좀 많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그거는 권고사항으로 한번 올릴까요? 명판 작게 하고, 설명을 좀 간략하게. 네, 그렇게 그림 하고 채점해 주시죠.

(채점 중)

8. 청라동 157-11

16) <Parametric Chess>

위원장 자, 다음 안건번호 16번 <Parametric Chess>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16번과 17번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조각만 얘기하는 건가요?
 위원장 네, 요 작품만 얘기하는 겁니다.
 ○○○ 먼저 부결된 작품과... 예, 하나 더 늘었네요.
 ○○○ 개수가요?

○○○ 예. 이거 볼 때. 먼저는 6개인데 지금 7개.
 ○○○ 먼저 게, 아, 왼쪽 건가요?
 ○○○ 예. 크기도 조금 키웠고. 예.
 ○○○ 신경은 많이 쓴 것 같은데
 ○○○ 네, 신경을 많이 썼네요.
 ○○○ 구성이 조금 이렇게 너무 단면으로 보여 가지고 좀 산만하게 보이거든요.
 ○○○ 네, 네.
 ○○○ 작품 설치에 있어가지고 좀 그 부분을 좀 권고사항으로 집중력 있게 해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설치가 너무 무난해서요?
 ○○○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 화면이라서 그런지 너무 행한 기분도 들고.
 ○○○ 네, 네.
 ○○○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되게 규모가 작은 것 같은데 실제 옆에 사람이 한 명 서 있었으면, 그런 화면 없나요? 규모를 좀 가늠할 수 있는.
 ○○○ 그냥 저 창문 보고 그냥 짐작해야 될 것 같은. 창문의 높이로.
 ○○○ 글썄, 투명 사람 하나라도 세워놔야 하면.
 ○○○ 예, 얼핏 보면 되게 작아 보이고.
 ○○○ 근데 그렇게 작은 비율은 아닐 텐데.
 ○○○ 글썄요, 노란 거, 제일 큰 거가 그래도 한 4m 될 것 같은데요, 폭 길이가.
 ○○○ 4m 95.
 ○○○ 거의 5m까지도.

○○○ 제일 큰 거는 6m라고 되어 있네요.

○○○ 5m, 5m 정도에 4m라고. 네. 4m 95.

○○○ 4m 95면, 5m.

○○○ 예? 4m 95고 폭이 5m.

서 기 4.95m 크기입니다.

○○○ 아, 폭이 5m구나.

○○○ 4m 95면 안전진단 안 받으려고 5m 밑으로 한 것 같은데요. 안전진단 사실 저거는 받을 필요 없죠, 더 커져도. 그렇게 안전 진단 받을 만큼 위험한 형상은 아닌데. 높이만 가지고 그냥 안전진단을 필해야 된다는 것도 약간 좀 문제가 있죠. 알루미늄이죠, 재료가?

○○○ 네, 알루미늄 주물, 우레탄 도장, LED조명.

○○○ 네, 네, 네.

○○○ 알루미늄 주물이에요?

○○○ 네.

○○○ 네, 주물이요.

○○○ 아, 주물이네.

○○○ 그러면 안에 딱 차 있는 건가요?

○○○ 아니에요, 비어 있는 거죠.

○○○ 비어 있어요?

○○○ 네.

○○○ 두께는 어느 정도 될까요?

○○○ 두께는 그냥 주물로 하면 보통 한 3T, 4T 정도 되니까.

○○○ 아, 네, 네, 알루미늄 두께랑 비슷하네요.

○○○ 네. 조금 이제 들쭉날쭉 어디는 아주 두껍고

○○○ 네, 네, 네.

○○○ 네, 어디는 얇고 이런데 아주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주물이.

○○○ 네, 네. 그냥 한 피스로 딱 된 거죠? 연결하는 게 없고, 예.

○○○ 부분, 부분해서 용접을 붙이겠죠.

○○○ 네, 네.

○○○ 이전 것보다 나은 것 같은

○○○ 예, 이전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 표면의 디자인도 그렇고, 예.

위원장 네,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중)

○○○ 아쉬운 건 태양광이라는 게 조금 아쉽네요, 조명이.

○○○ 예.

○○○ 이거 컨트롤 박스

○○○ 그렇죠.

○○○ 절리적거리고.

○○○ 예, 예, 예.

○○○ 그리고 워낙 이게 덩어리로 열어 갈래다 보니까 아마 그랬나봐요. 켤
러도 있고.

○○○ 사실은 조명이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위치상도 그렇고, 구조상도
그렇고. 요즘 뭐 야간이라고 해가지고 뭐 철축이 아니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데는 없으니까. 조명이 있더라도 그냥 사족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8. 청라동 157-11

17) <반복>

- 위원장 자, 다음 안전번호 17번, <반복>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17번 작품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성펜이라는 게 뭔가요? 중성펜?
- 저도 중성펜을 사용해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근데 이게 그림이 원래 톤이 이런 거예요? 사진이나 이게 해상도가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 원래 작품도 그렇고, 사진 해상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효과가, 사진 효과가 별로 안 좋네요. 그리고 지금 저 하단에 지금 나온 화면에 하단에 보면 한 피스로 된 것처럼 저렇게 왜 자료를 저렇게 준비했는지 모르겠네요. 50호 두 개가 가로로 연결된 작품인데.
- 아, 50호인가요?
- 50호예요, 50호.
- 100호라고...
- 100호 2개인데.
- 100호 2개. 그래서 제가 100호는 가격이 너무 세다고 나와서 생각했는데.
- 그러니까 2개 합쳐서 100호 사이즈인 거죠.
- 50호가 F형 2개입니다, 하나로.
- 누가 이런 걸 써요. 이렇게 이거 저 미술협회에다가 가격 의뢰하면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 키우라고 그러지, 뭐. 조건부, 조건.
- 저는 그것도 그렇고 이게 너무 컬러 톤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가

가 의도를 해서 이렇게 잘 그런 벽의 기본 색깔들이 이제 회색 모노인 데다가 이거를 얹으니깐 너무 그...

○○○ 침체된 느낌.

○○○ 예, 예. 좀 다운된 느낌이라 이거는 그 벽에 들어가서 하기에는 조금 약해 보이거든요, 저는.

○○○ 공간의 아우라까지는 아니라도

○○○ 네, 네, 그건 아니지만

○○○ 좀 공간을 좀 밝게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어...

○○○ 차라리 검정색 벽이라든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작품이 그 놓여질 위치에 대해서 그 공간에 대한 이해가 좀 안되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벽인지, 작품인지 잘 모르게 하는 게 작가의 의도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 쪽으로 가신 건지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 근데 이런, 이런 공공미술 작품으로 제출을 많이 안 해보신 분 같기도 해요, 사실은. 그냥 자기 작품을 그냥 갖다 놓은 것 같아, 본인의 작품을. 장소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본인의 작품을.

○○○ 그래서 이게 재심의라서 물론 그런 배려 같은 것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좀 한번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는 게 좀. 그리고 이게 자체가 오피스텔인 거잖아요.

○○○ 아니, 그 자료, 그래픽이 효과라도 좀 선명하게 나오면 좋은데 흐리게 나오니까. 원래 작품이 좀 흐리긴 하지만.

○○○ 이게 오피스텔 부분인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 저도 그 장소 위치가 조금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작품이 너무 흐리고 어둡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캔버스에 지금 중성펜으로 그림을 그리셨거든요. 근데 여기 본인이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작품 유지, 보존

계획에 보면 조명, 열, 먼지, 냉난방, 바람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고 썼어요. 근데 출입구에 저렇게 걸려 있어서 위치 자체도 안 맞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 네.

○○○ 보존에 관한 생각도 조금 고려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네, 사실 공공미술은 작가의 작품성만 가지고 논의되어질 건 아니고 공공성도 작품의 가치만큼 고려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장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공익이라는 게 뭐 작가 개인의 작품 세계를 펼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작품이 공공미술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그 재료적인 측면에서 을 때 바니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위원장 중성 팬이 글썽요, 뭐 연필, 연필 같은 것도 아니고. 약간 드로잉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 나오신 의견을 토대로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중)

9. 서구 점단신도시 C5-1-1

18) <모던 타임즈(Modern Times)>

위원장 네, 오늘 마지막 심의 안건. <모던 타임즈(Modern Times)>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18번 <모던 타임즈(Modern Times)>는 ...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나왔던 그 화면이 새로 옮기고자 하는 위치인가요? 저 하단 게? 상단이, 오른쪽 상단이 원래 먼저 위치였고. 지금 그래픽 오른쪽 하단이 새로 정한 위치인가요?

서 기 맞습니다.

○○○ 저기 위치는, 새로운 위치는 어떤 지역, 어떤... 어떤 곳이죠? 여기는 어떤 곳이죠? 새로 제안되는 위치는? 여기는?

○○○ 이런 공간일 것 같은데요.

○○○ 제가 보기에 건물 뒤쪽에 휴게 공간처럼 되어 있는 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종종 그 앞의 상가 때문에 조형물이 좀 위치가 변경되기는 하죠. 상가에서 손님들한테 별로 시야가 가리니까. 그러니까 조형물이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방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 넓게, 넓은 폭이 넓게 잡은 작품이라 그런 것 같아요.

○○○ 이 건물이 훨씬 좋네요, 먼저 번. 배경이 시끄러워서. 예, 아주 산만한데

○○○ 배경이 현재는 산만하고 시끄러운데 뒤쪽은 안정 돼 보이네요. 적절해 보입니다.

위원장 네, 네. 자, 그러면 적절이나 부적절이나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는 매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점 중)

위원장 자, 집계하시는 동안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집계결과 발표 및 조건부, 권고 논의

위원장 네, 집계 결과가 나왔는데요. 집계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결이 15건, 부결이 3건, 총 18건 중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가결된 건수 중에서 권고나 또는 조건부에 대한 명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작품의 경우에 좌대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좌대의 크기와 그리드에 의한 격자무늬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 두 가지를 다 올려야 될까요? 그 높이를 조절해야 된다고만 우리가 조건을 해야 될지 아니면 권고는 아니고 이거는 조건이거든요, 좌대의 조건. 그 높이만 얘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무늬까지도 우리가 권고나 조건으로 해야 될지 그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건은 이게 필수사항이어서 반드시 고쳐야 될 거고, 권고는 작가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이런 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 네, 맞습니다. 네.

○○○ 높이를 올려라, 내려라 이것도 사실은

○○○ 그렇죠.

○○○ 권고사항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조건이 아니라. 저는 권고는 아닌 것 같고요. 조건으로 그거를 이제 달아서 처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 저도 아까 의견이 왔다갔다 할 때 이게 가결이 될까 조금 의구심을 가졌는데, 일단 가결이 됐거든요. 됐으니까 권고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좌대를 변동을 주는 그런 한도 내에서 가결을 준 거니까.

- 그렇다면 이게 높이 아니면 뭐 호, 격자를 줄여라, 이거보다는 조건인데 좌대를 좀 더 안정감 있게 어떻게 고쳐서
- 위에 상단에 작품의 일부분을 조금 더 잘...
- 예, 그렇게 하는...
- 키우던가.
- 그러니까 상단과 좌대의 비율을 다시 재 그거를 해 달라고.
- 그러면 좌대를 더 넓게 하면 어떡해요, 상단을 적게 하고.
- 아까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하단에 시선이 뺏기고
- 좌대에.
- 이려고 그러니까 좌대에. 뺏기니까 그 부분을 조정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 네. 뭐 조건부라면 우리 심의위원들이 작품의 원작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작가가...
- 작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좌대를 한 번 더 고민해 볼 것.
- 좌대를 좀 낮추든가.
- 이렇게 조형, 팔호 하고 크기라든가, 문이라든가
- 네, 그거를 한번.
- 사실 애초에 작가 스스로가 이게 제일 돋보이겠다 했을 거예요, 본인은,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우리 심의하는 목적이 의견이 수렴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좌대 높이 때문에 일단 문제잖아요, 그렇죠? 높이 조정을 해라. 그러면 뭐 높이겠어요? 낮추겠지. 그래도 높이면 뭐 할 말은 없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 한 4분의 1정도를 낮추면. 그 스퀘어의 개수가 줄어들고
- 예시 해 갖고 4분의 1 낮춘다, 이렇게.

- 그러니까 그 4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한 단 정도만 없애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제
- 그 좌대하고 작품의 비율이
- 4분의 1정도 축소. 뭐 이렇게.
- 그러니까 작품이 너무 너무 작게 느껴진다, 뭐.
- 그럼 좌대를 4분의 1로 줄이면 전체적으로 작품이 작아진다고 생각 안 할까요?
- 아니요. 그러니까는 지금 좌대가 작품에 비해서 너무 크잖아요.
- 크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그렇죠.
- 네, 그래서 그만큼만 줄여도
- 예, 무난할 것 같습니다.
- 예, 작품에 크기도 그 변화가 안 주면서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은데요.
- 네.
- 그 염려하신 대로 흑백의 명암 대비가 강한 것은 실제 구로 제작 됐을 때는 그렇게
- 그렇게 안 낮죠.
- 예, 농도 대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좌대가 그 위에 본체 작업을 갖다가 잡아먹는 그런
-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작가로서, 작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마 저 작가가, 조각가가 좌대 자체를 작품을 떠받치고 있는 옛날 고전적 의미로서의 좌대가 아니라 좌대 자체도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좌대가 위의 작품을 받쳐주는 게 아니라 좌대 자체까지도 작품이다라고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뭐, 그건 작가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 심의

위원으로서는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 그러니까 예라고 했으니까 뭐 알아서 하겠죠, 뭐.

○○○ 네, 네. 뭐라고 하셨죠? 작품이 돋보이도록

○○○ 작품이 돋보이도록 좌대를 조정할 것.

○○○ 좌대를 조정할 것. ‘어, 이거 좌대? 이것도 작품인데.’ 이렇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 예, 어쨌든 저렇게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미술에서 쓰는 용어 중에 휴먼 스케일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 네.

○○○ 휴먼 스케일에 맞춰서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높이여야 되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1,800이 좌대가 높으니까. 어른도 이렇게 해서 잘 안 보이거든요. 시민들이 편안하게 감상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말 하면

○○○ 내가 볼 때는 내 작품을 좀 우러러 봐라라는 의도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느낌에.

○○○ 그러기에는 있는 위에 있는 요소들이 너무 아기자기하니 디테일이 있어서

○○○ 아, 너무 귀여운 걸 위에다가 숨겨놓아서.

○○○ 그거보다는 일단은 높이고 그게 넓어지니까 허전해서 거기다 패턴을 넣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작품이 일부라고 생각을 했으면 뭔가 좀 이게 연결되는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서 저는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셨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 네. 그럼 저렇게 기록하도록 하죠.

서 기 다 동의하시나요? 이렇게 할까요?

○○○ 네, 네.

서 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2번. 2번에도 권고사항. 컨트롤 박스가

○○○ 아, 혹시 이제 그거는 권고인데

○○○ 음, 네.

○○○ 바깥으로 없고, 그냥 메인 컨트롤 박스로 돼 있으면 상관없고요.

○○○ 네, 네, 네.

○○○ 그런 건 사실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 예, 거기에 근데 아까 기초 콘크리트 부분이 너무 얇다는 말씀을

○○○ 아, 아, 그러네요.

○○○ 많이 하셨습니다. 200에서 300으로 높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
다.

○○○ 이 작품도요?

○○○ 예, 예. 2번 작품이 그랬습니다.

○○○ 아, 좌대 얘기했었나요, 이것도요?

○○○ 그 기초 콘크리트가 200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300으로 더 높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그거는 조건부로 해야 되나요?

(“조건으로” 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네, 조건으로 올려주세요. 네. 이것도 좌대나 바닥 나왔었죠?

○○○ 네.

○○○ 예, 300이상.

서 기 300이상 할까요?

○○○ 네.

○○○ 그럼 300으로 하겠죠.

서 기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 400으로 하는 게 튼튼한데.

위원장 자, 4번 작품 한번 보여주세요.

서 기 4번이요? 네.

위원장 네. 4번에 이제 이 조명이, 변환 조명이 들어오니까 그 방수 여부, 우천시 방수형 LED,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조명 관련 방수형 LED 사용을 권고.

서 기 이렇게 하면 되나요? 방수형 LED 조명을...

위원장 네, 다음 6번.

서 기 6번이요? 네.

○○○ 네. 네, 좌대 부분에

○○○ 6번이 이건가요?

위원장 이것도 높이는 거죠?

서 기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 그 좌대 직경을 줄이고, 높이를, 높이를 높인다. 그대로 높이면, 높이면 좌대가 많이 커져서 보기 싫을 테니까. 좌대 직경을 줄이고.

○○○ 이 토끼 뽕뽕한 것도 확실하게.

○○○ 네, 네.

○○○ 모서리, 토끼의 모서리. 토끼 형상의 모서리를 모깎기를 할 것.

○○○ 모서리 안전, 안전성 확보.

○○○ 안전성 확보.

○○○ 예, 모서리를 깎는다고 해서 모깎기.

○○○ 예, 모깎기.

○○○ 네.

서 기 이렇게 표현할까요?

○○○ 예, 아, 좋습니다.

위원장 네, 다음 10번 보여주세요. 7, 8번은 없고, 10번. 예, 안전한 고정 설치를 위해서

○○○ 전부, 전부

○○○ 예, 거기

위원장 앵커로 설치할 것.

○○○ 다 그냥 그 피스 앵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일반 앵커로 하라고.

서 기 그럼 8번부터 13번까지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위원장 네.

서 기 그럼 이거 권고이겠죠?

○○○ 네. 안전 설치를 위한 뭐.

○○○ 안전 설치를 위한

○○○ 앵커 사용.

○○○ 앵커 사용. 일반 앵커 사용.

○○○ 네, 저기가 아니고. 피스 앵커가 아니고요. 플라스틱이 아니고 철판 된 거. 피스 앵커.

○○○ 엑스.

서 기 네, 엑스. 이렇게 할까요?

○○○ 네.

위원장 다음 15번이요. 네, 그림 위치 조정하고 설명판을 하단으로.

서 기 이거는 권고인가요? 아니면 조건부 인가요?

○○○ 권고도 뭐...

○○○ 그건 권고죠, 뭐. 권고.

○○○ 네.

○○○ 그림 위치를 중앙으로 하고, 명판을 작고, 간략하고 하단으로 이렇게 다 써야 되나.

○○○ 하단에 설치. 아까 내용도 있었죠?

○○○ 예, 내용을 간략하게.

○○○ 간략하고 좀 크기도 작게.

○○○ 그다음에 설명 내용을 간략하게

○○○ 간략하고. 예, 크기도 작고.

서 기 작고. 크기를 작게 하여

위원장 네, 크기를 줄여 하단에 설치.

○○○ 근데 그건...

○○○ 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줄이라, 마라하...

○○○ 크기를, 선생님. 이렇게 중앙에 두는 건 좋은데 그 설명판을 밑에 놓는 문제는 각자 알아서 그때 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옆에 뒤도 되면 두는 게.

○○○ 그게 옆에, 옆에 두려고 했기 때문에 밑으로 그림이 좌측으로 이동된 게 아닐까요? 옆으로 두려고 하다 보니까.

○○○ 그러니까 센터만 맞추고.

○○○ 근데 이제 그거는 명판을 작게 하면 또 좀 어떨지 모르니까.

○○○ 그럼 위치는 그냥 권고사항에서 빼고요. 크기만 줄이고 간략하게 좀 해라M 그렇게 하면 알아서 걸 수 있도록.

○○○ 크기를 줄일 것.

서 기 크기를 줄일 것만 가나요, 그러면?

○○○ 예, 줄일 것. 하단은 빼고.

○○○ 근데 설명은 충분히 줄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길 필요 없고.

서 기 아, 설명은 빼나요, 그러면?

○○○ 아니, 아니, 그건 냅두시고.

서 기 냅둘까요?

○○○ 예.

서 기 줄이는 것 하고 옆에 설명도 간단하게 하고

○○○ 쓰시느라 힘들었을 텐데. 쓰시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서 기 명판의 작품 설명인가요?

○○○ 네, 작품 설명. 예.

○○○ 중앙으로 이동하고. 아, 이렇게

○○○ 아니면 중앙으로 배치. 하고 쉽표하고

서 기 설치. 예, 중간으로 배치하고... 이렇게 같까요?

○○○ 네.

○○○ 그다음에 벽과 중앙에 설치. 벽

위원장 다음 16번이요. 작품 배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저거를 어떻게 권

고나, 조건으로 하죠? 배치.

○○○ 그냥 권고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 네.

○○○ 저 이미지만 봐서 우리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좀 집중력 있게 배치

하면 돼요.

○○○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작품 배치에 있어서, 작품 구성에 있어가

지고 좀 더 주의를 기울인다, 이정도

서 기 구성에... 이렇게 하면 될까요?

○○○ 기울여 배치.

위원장 다 정리됐나요?

서 기 네.

위원장

네, 그러면 마지막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8건의 심의 안건 중에 7번, 14번, 18번은 원안 가결되었고요. 1번, 2번, 6번은 조건부 가결. 4번 그리고 8번에서 13번, 15번, 16번은 권고로 가결되었으며 나머지 3번, 5번, 17번은 부결되었음을 의결합니다.

(의 사 봉 3 타)

- 끝. -